



「열심히 일하는」 垂範事例

1. 個人別 垂範事例

철저한 장인정신으로 機械博士된 李柄澤씨

남양공업(株) 職長 이병택씨(31세)는 출근에서 퇴근시까지 선반과 드릴링 머신의 숲속에서 쇠를 깎는 産業現場의 勤勞者이다. 그는 17세에 현재의 회사에 입사하여 14년간을 동일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꾸준히 勤務하면서 이곳에서稼動되는 機械들의 성능을 完全히 把握한 후 效率적인 재조립·재배치를 통해 劃期的인 生産性 向上에 기여하였다.

즉, “-”자형 허브 생산 라인을 “U”자형으로 轉換하여 동 생산 라인의 人力所要를 5名에서 4名으로 減縮하였고, 2개 공정의 드릴링 작업을 1개의 工程으로 縮小하여 作業時間을 단축하였다. 그리고 허브 생산 라인의 3개 공정을 劃期的으로 改善하여 공정시간을 28% 단축하고, 연간 3억2천3백만원의 경비절감 효과를 올렸다.

現在 남양공업(株)의 불량률은 他業體의 3분의 1인 0.11%에 그치고 있다. 그는 철저한 장인정신으로 자기가 맡은 機械分野에서는 최고가 되고자 부단히 努力하는 職長으로 91년 11월 「품질명장」으로 선발된 바 있다.

2. 生産性 向上, 經營刷新 事例

TEP 10 運動으로 生産性 向上

도자기류를 製造·販賣하는 한국도자기(株)는

勤儉消費節約을 生活化하는 동시에 生産性을 向上시키고자 회장 주도 아래 “TEP 10 運動” 展開를 위한 사내 결의대회를 開催, 推進하고 있다.

TEP 10 運動이란 Thrifty(勤儉), Economy(節約), Productivity(生産性)을 10%씩 向上시키자는 運動을 指稱한다.

'90年 品質管理運動 展開로 거둔 절약실적액 7천억에 이어 '91년말까지 消費節約 目標額을 4.5억원으로 設定하여 이의 달성에 전사원이 積極 參與하였다.

生産性 向上 및 消費節約을 위한 具體的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물자구입 방식을 일괄 구입에서 社員 個別 購入으로 轉換, 購買量을 縮小(장갑: 2,000 켈레/월 ⇨ 1,400켈레/월)
- ② 가마독의 폐열을 회수하여 재사용
- ③ 재사용 봉투 수집, 포장 박스도 去來處로 부터 回收
- ④ 月 1,500만원의 유약을 회수하여 70% 이상 再活用

3. 勞組의 救社運動 事例

勞組 스스로 經營위기를 診斷, 會社를 소생시킴

仁川所在 ○○○○(株)는 스테인레스 주방용품을 製造, 輸出하는 會社로서 6.29宣言 以後에는 극렬한 勞使粉糾로 인해 몇 차례 도산위기를 맞

있던 會社이다.

그러나 勞組 스스로가 經營分析研究所에 依頼해 나온 會社의 經營狀態診斷報告書를 통해 會社의 實情을 제대로 알게 된 勤勞者들이 救社運動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

그리하여 勤勞者들 스스로 수년간 거부했던 殘業을 作業量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고, 토요일도 하오 1시 退勤에서 正常勤務로 轉換하는 등 生産性 向上에 전력을 다하였다.

'91年 貨金交渉時 8회에 걸친 협상 끝에 勞組側이 提示한 引上額(시금 1,570원)에서 스스로 50원을 내려 받기로 하고 勞組의 執行幹部和 대의원들도 간부수당·延長勤務手當을 자진 반납, 會社의 經營 호전을 위해 앞장섰다.

이러한 勞使和合 霧圍氣 속에서 매년 平均 10%씩 떨어지던 生産性이 '91년 들어 20% 向上됐고, 3~4%이던 製品不良率도 勤勞者들 스스로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여 “不良率 0”를 記錄하게 되었다.

勤勞者들의 이같은 努力으로 위기에까지 몰렸던 會社의 사정이 호전되어 매년 10억 이상의 적자에서 올해는 3億원의 黑字로 반전되었고 賣出額도 '88年 270억, '89年 240억, '90年 230억으로 매년 減少해 오다 '91년에는 '88年度水準인 270억원으로 回復될 展望이다.

4. 外國의 例

獨逸

獨逸은 일하는 國民에게 극진한 대우를 하는 나라이며, 또한 機能을 존경하는 社會이다.

수십년간 같은 作業場에서 묵묵히 자신의 分野에 정성을 쏟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技能工의 정상이라는 「마이스터」(마이스터 制度: 見習工→도제→마이스터)에 도달키 위해서 부단한 자기정진을 하고 있다.

技能工에 대한 獨逸人의 관심은 10% 미만인 大學進學率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며 安定成長의 經濟構造下에서는 高學歷者의 직장이 감자

기 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설사 大卒學歷이 없고 有名企業에 勤務하지 않아도 機能分野에서 獨步的 存在가 될 경우 社會的 位置를 認定받게 된다.

바이올린 악기 제작자 홀스트 플도프스씨의 경우, 14세부터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이 分野에서 23年間 종사하여 마이스터 자리에 올랐다. 그는 꾸준히 한 分野에서 일한 結果 많은 노하우를 축적(바이올린 통 內部에 독특한 고안을 해서 좋은 음향효과)하였다.

이런 명성이 國際적으로 認定되어 向後 2년간까지 예약주문이 쇄도하고 있는데, 그의 자그만한 꿈은 자기 아들이 家業을 이어 받는 것이라고 한다.

日本

'90年 1人當 GNP가 2萬 4千달러로서 美國보다 높은 日本은 열심히 일하는 勤勞精神이 定着된 社會이다. 이 나라는 先進國 中에서도 勞使紛糾로 인한 廢業의 피해가 가장 적고 勤勞時間도 가장 긴 모습을 보이고 있다.

	日本	美國	英國
爭議로 인한 勞動損失日(千日, 87年)	256	4,456	3,546
年間 勤務時間(時間 / 年, 89年)	2,150	1,924	1,935

韓國의 조선소 간부는 日本 造船所 見學 소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 程度의 勞動強度라면 國內 造船所 勤勞者는 벌써 허리 디스크로 누웠을 것이다.” 그들은 組立分野 勤勞者 한 사람이 1人 3役을 해내고 있으며, 半自動 용기를 다루는 데도 우리의 경우는 한 사람이 많아야 4~5臺를 다루는데, 日本 勤勞者들은 10대를 다루어 내고 있었다.

그들은 個人事情으로 조퇴나 결석을 하면 반드시 다른 기회에 補充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성실한 勤勞姿勢는 「會社가 잘되야 내가 잘된다」는 뿌리깊은 共同體意識에서 出發한 것이다.